

세계질 푸르른 양진디와 함께...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 '미운 오리' 위성미...시련의 계절

연련·선수들 비난 속 프로암 매너도 도마위에



#### 골프장 안팎서 '뭇매'

지난 주 김트리뷰트에서 '거짓 부상' 논란으로 미주요언론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하며 시달려온 위성미(18·나이기골프)가 이번엔 프로암 대회 매너가 도마위에 올라 18세 소녀로서 힘든 시련을 겪고 있다.

위성미는 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하브데그레이크의 볼록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프로암 대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프로암에 같은 조로 댄던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었다. 잊지도 않은 사실로 나를 공격했다"면서 "LPGA 측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주장했다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것처럼 프로암 대회와 관련된 상황 역시 위성미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의 골프 칼럼니스트 톰 시락은 7일 인터넷에서 쓴 기사를 통해 "2주 연속 위성미의 프로암 파트너들이 그녀의 불친절함에 불평을 터뜨렸는데 그 사람들은 수천 달러를 내고 프로암을 치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며 오히려 위성미의 책임으로 돌렸다.

한편 위성미는 7일 밤(이하 한국시간) 시작되는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대회 개막을 앞두고 안팎에서 여론이 시달리고 있다.

미셀 위는 6일 메릴랜드주 하브데그레이크의 볼록 골프코스에서 프로암 대회에 끝난 뒤 공식 인터뷰에서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 스타(스웨덴)에게 쓴 소리를 들은 데 이어 7일자 현지 언론으로부터도 뭇매를 맞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LPGA 명예의 전당 입성' 박세리

## “남은 목표는 그랜드 슬램”

#### “올해의 선수상도 욕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는 박세리(30·CJ)가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해 밝혔다.

7일 밤(이하 한국시간) 시작되는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1라운드 종료 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박세리는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메릴랜드주 하브데그레이크의 볼록 골프코스(파72·6천488야드)에서 연습 라운드를 마친 뒤 가진 한국 언론과 기자 회견에서 “남은 목표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과 올해의 선수상 수상”이라고 말했다.

박세리는 “사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인데 맨 먼저 이루게 됐다. 어렵기로 따지자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 그 다음이고 올해의 선수상이 세 번째”라고 덧붙였다.

4개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커리어

어 그랜드 슬램에 박세리는 나비스코 챔피언십을 남기고 있다. 박세리는 4월 초 끝난 올해 나비스코 대회에서 최종 라운드 중반까지 선두를 달리며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을 눈앞에 두는 듯 했으나 이후 갑작스런 난조에 빠지며 결국 10위로 대회를 마쳤다.

박세리는 또 “내가 한창 잘 나갈 때는 안니카 소렌스타드 최고 전성기였다. 그래서 그 때는 한 해에 5승씩 했어도 올해의 선수상을 한번이 놓쳤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2등만 4번 정도 한 것 같다”는 박세리는 “올해의 선수상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웃어보였다.

“긴장이 되지만 많은 동료 선수들이 축하를 해주고 '하루 남았다'고 알려줘 어느 정도 실감이 되기 시작했다”는 박세리는 “이제 LPGA에 40명이 넘는 한국 선수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싶고 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코리아 남자군'의 리더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 '맥도널드 우승 할거야'

박세리가 7일 미국 메릴랜드주 하브데그레이크의 볼록 골프코스에서 열린 LPGA 맥도널드 챔피언십 연습라운드 9번홀에서 샷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명예의 전당에서는 막내가 됐기 때문에 막내 때 자세로 돌아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박세리가 또 다른 목표인 커리어 그랜드 슬램과 올해의 선수상 수상을 위해 달리는 모습에 골프 팬들은 더욱 열광하게 됐다.

### 골프장 업계 '캐디 월급제 전환' 반발

#### 대량 해고사태 조짐

정부가 고용안정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캐디특별보호법이 오히려 골프장 캐디들의 대량 해고 사태를 촉발시킬 조짐이다.

골프장 경영자 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경기도우미들을 월급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캐디특별보호법이 제정되면 골프장 대표 대다수가 캐디없이 사업장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7일 밝혔다.

협회가 최근 전국 회원사 대표 108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8%(95명)가 “밥이 제정돼 캐디를 월급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면 캐디를 없애거나 최소한 인원만 남기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밥이 시행되면 2만5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전국 캐디 가운데 90% 안팎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골프장경영협회는 주장했다.

우기정 골프장경영협회 회장은 “최저임금보장제가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해고를 불렀듯 캐디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수많은 캐디가 일자리를 잃는 사태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함평다이너스티CC 비회원 그린피 할인

### 파인힐스CC 골프장에서 재즈 콘서트



○... 4계절 양진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가 오는 11일부터 비회원 대상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함평다이너스티CC는 비회원들을 위한 그린피와 할인 혜택을 마련, ▲내장일 5일전부터 4일전까지 예약할 경우 1만원 할인 ▲내장일 3일전부터 2일전까지는 2만원 할인 ▲내장일 1일전부터 당일까지 사이에 예약이 될 경우에는 3만원 원할인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오는 11일 라운드를 하기로 예약한 비회원이 그 예약을 5일전인 6일에 했다면 그린피 1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고, 8일에 했다면 2만원, 10일에 했다면 3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비회원 대상 할인 이벤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함평다이너스티CC 홈페이지( www.hpdynastycc.co.kr )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인터넷 회원 예약하기 버튼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할인금액을 볼 수 있다.

○... 파인힐스CC가 최근 골프장내에서 재즈 콘서트를 열어 내장객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파인힐스CC는 회원가족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초청, 1부에서는 지역주민과 회원 노래자랑을 통한 화합을 마당을 갖고 2부에서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재즈콘서트와 최거령씨의 색소폰 공연을 가졌다. 공연후에는 먹거리 장터를 개설, 삼겹살 파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갖고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한편 파인힐스CC는 2012여수엑스포 개최 홍보를 위해 공식배치 달아주기, 홍보리플렛 비치, 차량용 홍보스티커 부착 등 행사를 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프랑스오픈 테니스 '환상의 복식 출사위'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롤랑가로 클레이코트에서 열린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복식에서 한성희(왼쪽)가 상대팀인 엘레나 체르니아코바(러시아)-제시카 무어(호주)의 공을 되받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 '득점원 다변화' 성과

올림픽팀, 2차예선 최종전서 UAE에 3대1 승리

#### 조 1위 최종예선 '골인'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축구가 6일 아시아 2차예선 최종전서 UAE를 3대1로 꺾고 무난히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 올랐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골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김 배어 감독의 고백처럼 골 결정력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영무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지적을 함께 받았다.

올림픽대표팀은 2차예선에서 5승1패, F조 1위로 최종예선 티켓을 확보했다.

6경기를 치르며 10골을 넣었고 3골을 내주는 등 공-수에 걸쳐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가장 큰 수확으로는 다양한 득점원의 발굴을 꼽을 수 있다.

예멘과 2차예선 1차전에서 주전 공격수 박주영(FC서울)이 '배치기 반칙' 퇴장으로 출장 금지 징계를 받은 뒤 부상까지 겹쳐 이후 한 경기도 뛰지 못했지만 한동원(성남), 이근호(대구) 등이 공백을 잘 메워줬다.

공격형 미드필더 및 처진 스트라이커로 뚝 한동원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원정 2차전(3-1 승) 및 우즈베키스탄과 홈 3차전(2-0 승)에서 잇따라 2골씩 터트리며 올

림픽대표팀의 새로운 해결사로 우뚝 섰다.

올 시즌 프로축구에서 정규리그와 컵대회를 통틀어 8골로 한국 선수 중 득점 1위(전체 7위)를 달리고 있는 이근호도 6일 UAE와 2차예선 최종전에서 2골1도움을 올리는 등 맹활약으로 아시안컵 대표 발탁 가능성이 높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골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김 배어 감독의 고백처럼 골 결정력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영무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지적을 함께 받았다.

올림픽대표팀은 2차예선에서 5승1패, F조 1위로 최종예선 티켓을 확보했다.

6경기를 치르며 10골을 넣었고 3골을 내주는 등 공-수에 걸쳐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가장 큰 수확으로는 다양한 득점원의 발굴을 꼽을 수 있다.

예멘과 2차예선 1차전에서 주전 공격수 박주영(FC서울)이 '배치기 반칙' 퇴장으로 출장 금지 징계를 받은 뒤 부상까지 겹쳐 이후 한 경기도 뛰지 못했지만 한동원(성남), 이근호(대구) 등이 공백을 잘 메워줬다.

공격형 미드필더 및 처진 스트라이커로 뚝 한동원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원정 2차전(3-1 승) 및 우즈베키스탄과 홈 3차전(2-0 승)에서 잇따라 2골씩 터트리며 올

## 사우디·호주 피하면 최상

#### 13일 최종예선 조추첨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에 오른 12개 팀이 확정됐다.

6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2차예선 최종전에서 화끈한 3-1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둔 한국을 비롯해 바레인 카타르(A조), 일본 시리아(B조), 레바논 베트남(C조), 사우디 아라비아 호주(D조), 이라크 북한(E조), 우즈베키스탄(F조)이 아시아에 배정된 올림픽 본선 티켓 3장을 놓고 다투게 됐다.

최종예선은 8월22일부터 11월21일까지 12개팀을 세 조로 나눈 뒤 2차예선과 마찬가지로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의 더블리그를 펼치게 된다.

각 조 1위팀만 베이징행 티켓을 가져갈 수 있어 매 경기가 전광과 다투는 열전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일단 아테네올림픽 본선에 올랐던 일본, 이라크와는 만나지 않는다. 세 팀은 최종예선 조 편성에서 시드를 배정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최종예선 조 추첨은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진행된다.

현재 관도로 볼 때 사우디와 호주를 피하는 게 최선책이다.

중동 축구의 맹주 사우디는 독일월드컵 예선에서 한국의 발목을 두 번이나 낚아채는 등 늘 골리부러운 상대였다. AFC에 새로 들어온 호주는 이란을 '저승'으로 보낸 강호다. 나머지 중동 팀들은 전력이 엇비슷하다. 바레인, 카타르, 시리아, 레바논은 모두 복병이긴 하지만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대다.